# 안하느니만 못한 국힘 전당대회

윤휘종의 잠시 쉼표

국민의힘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 달 가량의 대장정을 마치고 8일 마침내 끝났다. 지난 1월 31일 후보자 등록 공고 이후 2월 2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뒤 13일부터 제주합동연설회 등 일곱 번의 합동연설회를 거치며 한 달 가량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런데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나보다. 주요 당대표 후보자들 간의 경쟁은 과열을 넘어 분열의 씨앗마저 잉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김기현·안철수·황교안·천하람 등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당의 미래나 보수의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친윤'이냐 '비윤'이냐의 싸움에 매몰됐다. '윤심(尹心)', 즉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를 놓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윤심'을 찾기 위해 삼만리를 헤매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니, 과연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전당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진흙탕 싸움'의 수위는 올라갔다. 김기현대 안철수·황교안의 대결구도는 같은 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에 달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네거티브 공세를 그만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

이들의 대립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에 대통령실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절정에 달했다. 심지어 안·황 후보 측은 김 후보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패할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대통령실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며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발하기도 했다. 강 수석이 '대통령실 행정관의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 요청'에 개입했다며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이다.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핵심 측근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천하람 후보도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행위는 범죄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 후보가 대표가 되어도 정당성이 큰 흠집이 생겨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김기현 후보는 이런 안·황 후보 측의 공세를 '내부 총질'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안·황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쯤 되면 웬만한 막장드라마 저리 갈 정도다. 집권여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자는 '땅투기꾼'으로 몰렸으며, 여당과 호흡을 맞춰야 할 대통령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정선거질서를 해쳤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패한 후보들이 과연 그 결과를 제대로 인정할지조차 의문인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내년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오히려 분열과 분당의 가능성만 더 높아지게 생겼다.

집권 여당의 분열은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도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라 할 수 있는데,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저런 모습이면 정당정치가 자리잡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국정운영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부장 yhj@metroseoul.co.kr

# 공개하면 싸질까

기자 수첩

허정윤 〈산업부〉

석유업계는 오는 10일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석대법' 시행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막혀서 도입되지 못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석유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격 공개 자체가 '담합'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미 정유사들은 제품 대상별, 업체별 전국 단위로 유가 평균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역 단위까지 공개하게 되고 시장 지배력이 강한 정유사 위주로 가격 치킨 게임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치킨 게임 후에는 경쟁에 패배한 주유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결국 남은 주유소들이 다시 '암묵적인 가격 올리기 담합'에 들어간다면 겉보기에는 투명성이 확보된 것 같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정유사들은 제품 가격을 책정 시 국제 유가에 따라서 운송비, 저유비, 품질보정비 등만 붙여 팔기에 제품가를 더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세금 비중이 높은 국가 상위 10위 그룹 안에 들어가는데 가격은 낮은 수준"이라며 "그만큼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에 제품 마진을 최대한 붙이지 않으면서 공급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정유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국가와 시민은 어려운데 정유사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선을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수출 효자'로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2022년도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액은 570억3700만 달러(한화 약 73조7400억원)로 집계돼 기존 최고치인 2012년 532억51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이 말인 즉슨, 정유사들은 업이기에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내에 팔 기름을 수출할 때 수익에 유리하다면 그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비싼 주유소는 안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도매가를 공개하면 '싼 주유소가' 생기는 게 아니라 '비싼 주유소'마저 귀해질 수 있다.

서민 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일이지만, 그 방향이 오히려 시장 경제를 망가뜨려 서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zelkova@

## 오늘의 운세

3월 9일 (음 2월 1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세월이가니 책이 나의 스승이다. **48년생** 지는 잎을 보면 내 신세 같아서 서글프다. **60년생** 퇴직이 시련처럼 보이나 좋은 일이 있다. **72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 **84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

**37년생** 투자했다가는 패가망신. **49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으니 희망을 갖자. **61년생** 위기를 기회로 전환. **73년생** 근거 없는 칭찬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85년생** 일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인 사람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

**38년생** 효(孝)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50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아직 많다. **62년생**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듯 사랑도 마찬가지. **74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86년생** 음주 후에는 활동자제.

**39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51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63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75년생** 신용 없이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87년생** 가난보다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40년생** 눈높이를 낮추면 일을 쉽게 구한다. **5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64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76년생**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88년생** 대인관계에서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

**41년생** 종일 즐거움이 모여든다. **53년생** 소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65년생** 감정이 안정되어야 마음이 편하니 여색을 멀리해보라. **77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측은지심이 먼저이다. **89년생** 바라는 일이 없다면 되는 일도 없다.

**42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54년생** 친구와의 대화를 주의. **66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78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 **90년생** 눈이 빠지게 고대하나 창업은 시기상조 5월 지나서.

**43년생**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건강해서 감사. **55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67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79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 **91년생**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44년생**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 **56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68년생** 마른논에 물들어 오듯이 고민이 일시에 해결. **80년생** 오후 음주 운전에 조심. **92년생** 외국행은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

**45년생**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일이 풀린다. **57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69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81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겠다. **93년생** 인생을 꽃피우려거든 가정을 먼저이루는 것이 복을 증진.

**46년생** 하늘이 부여해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58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로 변한다. **70년생** 노후대비는 젊어서부터 해야 할 것. **82년생**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94년생** 양보와 포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데.

**4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 **59년생** 뿌린 대로 거둔다. **71년생** 새벽길에 운전조심. **83년생** 불행하면서 부자인 것이 나은지 행복하면서 가난한 것이 나은지는 본인이 생각할 것. **95년생**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미래이니 계획을 갖고서.

# 김상회의 四季

## 이름은

출산율이 낮아져서인지 아기 이름을 짓겠다고 오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각인되어가는 터라 내심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아기 이름 상담이 있게 되면 필자도 탄생에 대한 기쁜 마음이다. 며칠 전 모처럼 막 태어난 손자이름을 짓겠다며 방문한 H여사가 내어놓는 아기사주를 보니 계묘년 갑인월 출생의 남아로서 목木기운이 왕한데 비해 건강 재운에 도움을 주는 오행이 부족한 지라 이를 보완하여 작명했다.

음양오행원리에 의한 사주명리학이 발달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에 거는 기대가 각별하다. 특히 혈연·혈족에 남다른 의미가 깊은 터라 같은 성씨 내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쓰는 공통돌림자를 사용하여 항렬까지 따져볼 수 있게 이름을 짓는다. 이런 관계로 어떤 돌림자를 썼느냐에 따라 나이 지긋한 이가 젊은 친구에게 삼촌 또는 할아버지 격이 된다며 친족 존칭의 공손한 모습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사주학 경시 풍조도 있었고 한글이름이 유행인 적도 있어서 옛날만큼 성명학에 관한 관심이 적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좋은이름을 짓고자 정성을 쏟는다.

일반 서점가에는 한자이름을 지을 경우 가정집에서도 손쉽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성명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좋은 이름이란 사주명리학적 기반 위에서 작명하는 것을 으뜸으로 친다. 이것이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명학의 원조는 81수리로서 중국 송나라 때 사람인 채구봉선생으로 알려져 있다. 81수원도(八十一數元圖)를 만들어 한자의 획수에 의한 길흉을 설명한 것으로 이름을 짓고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 힘

문제출제: 손호성

###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 | | | | | | | | |
|---|---|---|---|---|---|---|---|---|
| 3 | 8 | | 1 | | | 9 | | |
| 6 | | | | 8 | | | | |
| | | | | 3 | 9 | | | |
| 1 | | | | | | | | |
| | 4 | 9 | | | | 2 | | |
| | | 7 | | | | | 9 | |
| 5 | | | | 4 | | 6 | | 2 |
| | | | | | 2 | | 7 | |
| | | | | | | 1 | | |

| | | | | | | | | |
|---|---|---|---|---|---|---|---|---|
| 8 | | 9 | | 6 | | | | 4 |
| | 7 | | | | 5 | | 6 | |
| 2 | | | | | | | 3 | |
| | | | | | | 4 | | |
| 6 | | | | | | | | |
| | 1 | | | | | | 9 | |
| | | | 4 | | | | | |
| | 3 | 8 | | | 1 | | 2 | |
| 1 | | | | | | | | 9 |

### 정답

| | | | | | | | | |
|---|---|---|---|---|---|---|---|---|
| 3 | 8 | 5 | 1 | 2 | 6 | 9 | 4 | 7 |
| 6 | 9 | 4 | 5 | 8 | 7 | 3 | 2 | 1 |
| 7 | 2 | 1 | 4 | 3 | 9 | 8 | 6 | 5 |
| 1 | 3 | 6 | 2 | 9 | 4 | 7 | 5 | 8 |
| 8 | 4 | 9 | 7 | 5 | 3 | 2 | 1 | 6 |
| 2 | 5 | 7 | 6 | 1 | 8 | 4 | 9 | 3 |
| 5 | 7 | 3 | 9 | 4 | 1 | 6 | 8 | 2 |
| 4 | 1 | 8 | 3 | 6 | 2 | 5 | 7 | 9 |
| 9 | 6 | 2 | 8 | 7 | 5 | 1 | 3 | 4 |

| | | | | | | | | |
|---|---|---|---|---|---|---|---|---|
| 8 | 5 | 9 | 2 | 6 | 3 | 1 | 7 | 4 |
| 3 | 7 | 4 | 9 | 1 | 5 | 8 | 6 | 2 |
| 2 | 6 | 1 | 7 | 4 | 8 | 9 | 3 | 5 |
| 9 | 8 | 3 | 6 | 7 | 2 | 4 | 5 | 1 |
| 6 | 4 | 2 | 1 | 5 | 9 | 7 | 8 | 3 |
| 7 | 1 | 5 | 8 | 3 | 4 | 2 | 9 | 6 |
| 5 | 9 | 7 | 4 | 2 | 6 | 3 | 1 | 8 |
| 4 | 3 | 8 | 5 | 9 | 1 | 6 | 2 | 7 |
| 1 | 2 | 6 | 3 | 8 | 7 | 5 | 4 | 9 |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 장 규 | 편집국장 | 김 승 중 |
| 인 쇄 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3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47호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